

나주시, 24시간 악취 대응팀 신설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해 나주형 악취관리 플랫폼 완성 혁신도시 현안 해결 총력

나주시가 혁신도시를 비롯한 집단주거지 인근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인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악취전담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고질적 악취 민원 해소를 목표로 환경관리과 산하에 새롭게 꾸렸다.

나주시는 악취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 한 24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나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도내 1위, 전국 4위 규모의 축산업에서 비롯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수 년 간 도심과 지역 에 위치한 양돈장과 퇴비업체 등에서 내뿜는 악취는 민원 폭증으로 이어질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혀왔다.

신설된 악취전담팀은 '악취관리종합대책 수립', '악취민원협의체 구성·운영',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악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악취해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혁신기술을 도입한 '24시간 악취통합관제



나주시 관계자가 축산악취 조사를 위해 포집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센터'를 구축하고 실시간 악취발생 동향, 악취모델링에 따른 사전 예측 등 선제적 조치로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위주의 일방향적 악취관리 체계 극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나주형 악취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는 주민들이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실시간 악취상황을 수치상으로 확인·신고하면 현장에 출동

한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한 후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전담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환경권을 개선하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주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속도

설계 당선작 선정... 행정·문화·복지 윈스톱 인프라 구축

함평군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행정·문화·복지 등 윈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함평읍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함평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 마을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공모에서는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 구성 등이 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시설과 연계성·친환경성 등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총 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연면적 3797㎡,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은 함평읍사무소·공동보육시설·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2층은 공유 주방·대회의실·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한다.

함평군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함평에 걸맞은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릴레이 플로깅 연말까지 진행

관방제림·용마루길 일원 정화 주민 호응 이어져

담양군이 최근 관방제림 등 주요 관광지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진행한 릴레이 플로깅에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져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산책·조깅 등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관방제림과 용마루길 일원에서 현재까지 15개 단체 173명이 참여했다.

이상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은 "담양의 아름다운 관광지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의미있는 행사에 주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생활 속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도 청사 내 일회용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컵 사용과 친환경상품 저탄



담양군민들이 관방제림에서 플로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소 제품 구입,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나섰다.

담양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정약용이 소풍 다녔던 '용혈암지' 강진군 도지정문화재 선정 박차

추가 발굴조사 통해 용혈암지 가치 회복 최우선

강진군이 도암면에 있는 '용혈암지'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추가 발굴 조사와 복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용혈암지는 백련결사로 널리 알려진 만덕사(현 백련사)의 8국사 가운데 제2세 정명국사, 제4세 진정국사, 제7세 진강국사가 수행한 유서 깊은 암자이다. 용혈암지는 해발 433m의 덕룡산의 남동쪽 해발 200m의 용혈이라는 천연동굴과 그 앞 평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2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47호로 지정됐다.

용혈암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 새롭게 재조명된 곳으로 '만덕사지'와 시문집에 여러 편의 관련 글을 남겼다.

다산이 강진 유배생활(1801~1818) 중 진정국사를 사모해 1808년부터 매년 봄 정례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소풍을 다녔을 만큼 좋아했던 장소이다.

'동문선', '호산록' 등 관련 문헌 기록을 보면 고려시대 당시 용혈암 기록이 있다.

다산 정약용의 글과 윤정기와 윤치영의 문집 속에도 용혈암 공간과 이곳에서 고려 국왕이 천황에게 하사했다는 금동 바릿대와 향로에 관한 유물 기록도 남아 있다.

2013년, 2014년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2동과 석열 2기 등 유구가 확인되었고 고려기와를 비롯해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등 유물이 출토됐다. 하부 용혈 굴에서는 다량의 고려청자 불두편이 출토되어 이곳이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하부 용혈암지는 발굴조사가 완료됐으나 인근에 있는 상부 용혈암지는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혈암이 옛 명성을 회복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상부 용혈암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강진군 측의 설명이



용혈암지 발굴 현장 모습.

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용혈암지가 고려시대부터 유명한 고승들의 수행 공간으로서 불교 사상적인 가치가 매우 크고, 출토된 청자 불상 등 유물도 불교 조각사 및 공예사적 가치가 충분하다"면서, "용혈암지를 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 관리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가뭇 심각' 장성군 "물 절약 동참하세요"

장성군이 지속되는 가뭇으로 평림댐 용수공급이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림댐은 지난 6월 19일 가뭇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7월 2일 '주의 단계', 8월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올해 평림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544mm(8월 21일 오전 5시 기준)로 예년 대

비 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수도물 아껴쓰기, 가뭇 행동요령,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안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생활용수 이외에 공원 조경관리, 폭포 분수대 등 공공수량 사용의 단축·중지·차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